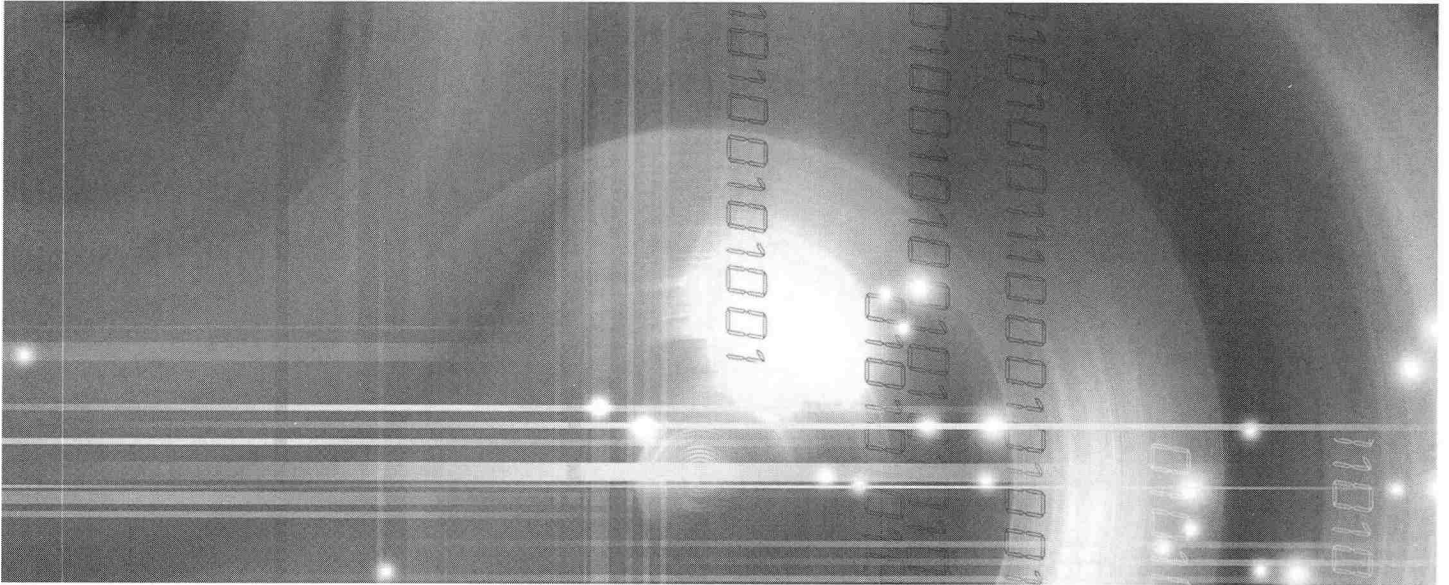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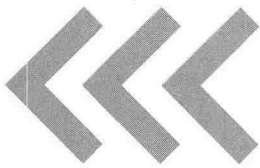


「 토종 카메라의 자존심, 세계 디카 시장에서 디지털 강자로 ‘급부상’ 」



삼성테크윈(주) 광디지털시스템사업부 DSC개발센터



‘2007 세계수영연맹선수권대회’ 남자 400m 자유형에서 4위를 달리다가 마지막 25m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역전드라마를 장식했던 마린보이 박태환처럼 삼성테크윈(대표·이종구/www.samsungcamera.com)은 세계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역전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후발주자로서 선발 업체들에 대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 세계 10위, 2005년에는 8위, 불과 1년만인 2006년에는 5위로 꺾뚝 뛰어올랐으며 2007년은 3위, 2010년은 세계 1위라는 야심에 찬 목표를 내걸었다. 이처럼 삼성테크윈의 디지털카메라가 어느 순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디지털 카메라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광디지털시스템사업부내의 DSC개발센터를 찾아 남병덕 상무로부터 제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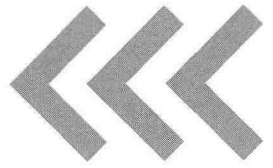
취재 | 박지연 기자 |

“디지털은 ‘스피드’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아날로그적인 노하우만 있으면 됐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아날로그적인 노하우에 더하여 변화무쌍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발 빠르게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스피드가 밑받침이 되어야만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96년 국내 최초 디지털카메라 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삼성테크윈의 디지털카메라 역사와

함께한 남병덕 상무는 삼성테크윈만이 갖고 있는 디지털기술 노하우와 삼성 그룹 내 풍부한 디지털 관련 인프라가 지금의 ‘디지털 강자’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1977년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정밀공업 업체로 출발한 삼성테크윈은 1979년 처음 필름카메라 사업에 뛰어들어 당시 제후사인 일본 미놀타 카메라의 조립판매부터 시작하여 1995년에는 독일 롤라



이를 인수했지만 카메라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후 2000년 하이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와 카메라폰 모듈 개발 등 광디지털사업에 집중할 것을 선언한데 이어 2001년 10월부터 '디지털카메라 일류화'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외형 갖추기에 들어갔다. 특히 2002년 이후부터 2배 이상이 넘게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개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 결과 지난 96년 최초 디지털 카메라(모델명 : SSC-410N)부터 지금까지 DSC개발센터에서 제품화한 디지털 카메라는 총 87기종이나 되는데 2004년 이후부터는 가속도가 붙어 눈에 띄게 기종수가 많이 늘어났다.

남병덕 상무는 "현재 연평균 20기종을 출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기종에 대한 개발 기간이 1년 이상 걸렸으나 근래에는 6개월 안에 제품개발을 완료할 정도로 놀라운 스피드를 자랑한다"고 말했다.

한 기종 한 기종 탄생할 때마다 각고의 노력과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2003년에 가수 '비'를 모델로 기용하여 선전한 'V4'가 삼성테크윈의 디카를 세상에 본격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후 2005년에 출시, '장동건 카메라'로 잘 알려진 '#1'은 디자인과 기능면에서 기존 삼성 카메라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한 터닝포인트가 된 제품이다. 이후 2006년에 출시된 '#1I'이 대표적인 컨버전스 제품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 출시된 프리미엄급 카메라인 'MV시리즈'는 삼성 카메라를 세계시장에 명품카메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삼성 카메라가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면엔 2002년 최초의 디지털컨버전스 제품(모델명 : 디지털맥스35MP3)을 선보였으나 실패했던 뼈아픈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기술력을 쌓으며 디자인 원형구현에 집중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

남병덕 상무는 "디자인, 화질, 성능에 있어 자체 개발인력과 일본 기술연구소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선발 경쟁업체들이 카메라 자체 고유기능에만 주력할 때 삼성테크윈은 고유기능에 플러스로 디지털컨버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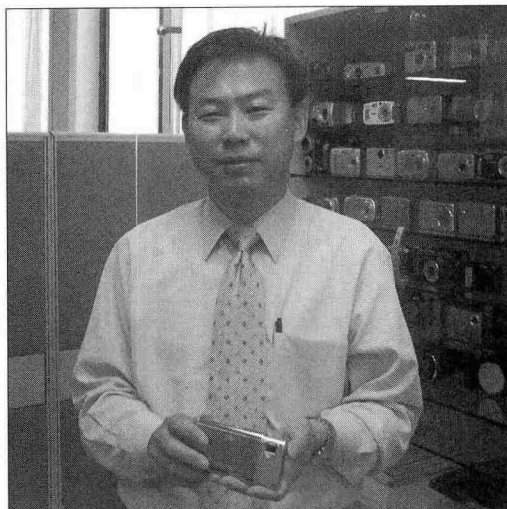
라는 고유의 카테고리를 구축해 나간 것이 큰 장점이 됐다"며 "이는 지난해 840만대 판매에 이어 올해 1200만대까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에 출시되는 메이커별 디지털 카메라는 화질이나 성능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평준화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 카메라도 선발경쟁 업체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남병덕 상무는 "그러나 세계시장 1위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의 표준화나 모듈화와 같이 기술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여 지금보다 개발 스피드를 높여나가고, 아날로그때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선행개발 및 일본연구소와 협력해서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디카 1위' 위해 화질 보완·개발 스피드 올리기에 주력

남병덕 상무는 "디지털카메라의 수요는 기존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어 주춤한 가운데 교체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며 "앞으로는 더욱 발 빠르게 고객의 다양해진 취향을 맞추고 새로운 재미를



▶ 남병덕 상무가 슬라이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블루 i70'을 소개해 보이고 있다. DSC센터에서 만드는 카메라 한대당 보통 330여종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핵심부품인 CCD 센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렌즈를 비롯하여 80% 가까이 국산화를 이뤘다고 한다.

더해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는 단순히 카메라로 찍는 즐거움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찍은 사진을 서로 보여주고 공유하는 즐거움을 찾는 시대가 됐다"면서 "화질이나 손떨림 방지, 얼굴 인식 기능 등을 넘어서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여 서로 공유하고, 같이 보고 편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DSC개발센터에서는 통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을 올리던 블로그에서 최근에는 UCC 동영상이 인기를 모으듯 사진의 패러다임은 '찍는 즐거움'에서 '보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을 미리 읽어내고 분위기를 리드해 나가는 그 중심에 삼성테크윈이 있는 듯 하다. 삼성테크윈에서는 최근 다양한 기능을 담은 컨버전스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곧바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블루(VLUU) i70'나 세계 30개국 6500여 곳의 여행지 정보 등 다양한 컨버전스 기능을 강화한 '블루 i7'을 비롯해, '블루 L74 WIDE', '블루 NV11' 등이 있는가 하면 '스마트터칭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 차별화 시킨 'MV 10'과 'MV 7' 등이 그것이다. 삼성테크윈의 저력은 이미 세계도 인정했다. 지난해 '#11 PMP'가 유럽이미지출판협회인 TIPA로부터 베스트 멀티미디어 디지털카메라상 수상에 이어 최근에는 '블루 i7'가 베스트 멀티미디어상과 베스트 이미지 혁신상 등 2개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카메라 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남병덕 상무는 "삼성테크윈만의 최대 장점인 컨버전스 기술을 비롯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앞선 화질의 제품력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진 요구에 부응하고 항상 재미를 구현하는 앞선 기술의 디지털카메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SLR에 있어서도 지난해 1월 펜탁스로부터 OEM방식으로 공급받은 'GX-1' 출시 이후 지난해 말 일본 펜탁스와 1년간 공동 개발한 1000만 화소급의 'GX-10'을 내놓았다. 올해 삼성테크윈의 기술력이 들어간 1기종을 추가로 더 선보일 예



▶ DSC개발센터내 평가실에서 인공태양조명등 테스트기 아래서 카메라 측청 테스트를 하고 있는 광경



▶ 평가실에서 한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카메라의 색감 및 화질 등을 상세하게 체크하고 있다



▶ 중국 공장의 카메라 제조 라인 광경. 삼성테크윈은 올해 3월 중국 천진에 첨단시설을 갖춘 디지털카메라 신공장을 준공하고 세계 3위 달성을 향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인데 기술력을 확충해 향후에는 DSLR 시장에서도 선발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삼성테크윈만의 개성이 넘치는 컨버전스형 DSLR 카메라가 최초로 탄생되지 않을까 자못 기대가 된다.